

社說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을 갈라놓고 마음대로 오갈 수 없었던 가상의 선 위에서 남북 정상이 악수하는 모습은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남북 정상은 27일 오전 9시28분께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T2)과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T3) 사이에서 첫 악수를 나눴다. 문 대통령이 먼저 오른손을 내밀었고, 김 위원장이 맞잡았다. 뜨거운 악수를 나누는 두 정상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약 24초간 대화를 나눴다.

남북의 정상이 손을 잡은 이날, 날씨는 쾌청했고 온 천지에 봄기운이 가득했다. 비로소 대결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가. 바야흐로 한반도에 봄이 무르익고 있다. 남북이 잡은 평화의 손, 앞으로도 꼭 잡고 놓지 말기를.

2018년 4월 27일, 김 위원장이 북측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지역으로 내려온 날이다. 이날, 남북 해빙의 출발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사건에 전 세계의 눈과 귀는 판문점으로 쏠렸다. 문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김 위원장의 '깜짝 제안'으로 서로 손을 맞잡은 채 군사분계선 북측으로 넘어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먼저 "(김 위원장께서)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언제쯤

어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이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의 손을 이끌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10초 북한 체류'가 이뤄질 수 있었다.

두 정상이 오랜 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을 함께 넘나드는 것은 분단 70년 역사에 없던 최초의 일이다.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남과 북의 땅을 모두 밟은 것이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언저 못했다던 최고의 순간이었다.

얼어붙었던 지난 역사를 뒤로한 채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는 메시지를 두 정상은 온몸으로 보여 주었다. 이날 두 정상이 함께 연출한 아름다운 장면은 향후 전개될 남북 관계에 새로운 역사가 쓰일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일까. 김 위원장은 평화의 집 방명록에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의 출발점에서'라고 적었다.

회담장으로 이동한 뒤 정상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

계선을 넘어오는 순간에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통 크게 대화를 나누고 또 합의에 이르러서 우리 온 민족과, 평화를 바라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분리선(군사분계선)이 사람이 넘기 힘든 높이로 막힌 것도 아닌데 여기까지(오는 데) 11년이 걸렸다"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11년 세월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수시로 만나서 걸린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말했다. 그러면

은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내놓은 6·15공동선언과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10·4 공동선언'에 이어 세 번째다.

6·15 선언과 10·4 선언은 군사적 적대 관계 청산, 정전 체제 종식 등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보다 원칙적인 언급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나마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발표

요하다.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번 선언에서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합의도 재확인했다. 특히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에 남북은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러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가을 평양 방문에도 합의했다.

결국 의미 있는 여러 결과를 내놓으면서 남북 정상은 함께 웃을 수 있었다. 서로 맘이 닿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함께 웃고 마음을 합치면, 평화의 시대가 올 것임은 분명하다. 우리를 짓눌렀던 전쟁의 불안도 사라지게 됐다.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다.

북한 땅을 통해 백두산에 가보고 싶은 거야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은 심정일 것이다. 평화가 지속되면 그런 날도 곧 오리다. '평화, 새로운 시작'을 오는 기쁘게 받아들인다. '세상에 서 유일하게 질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평화'라는 말이 깊이 공감하면서.

# 평화 새로운 시작, 한반도에 무르익는 봄 봄!

## - 4·27 '판문점 선언'을 반기며

서 "우리가 지난 시기처럼 또 원점에 돌아가고, 이행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보다는 기대하시는 분들의 기대에도 부응하고..."라고 덧붙혔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우리는 그동안 남북 간에 수많은 회담을 열었지만 대결을 끝내지도 평화를 일구지도 못했다. 이번에도야말로 분단과 전쟁, 적대와 대결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다행히 남북은 도보다리 위에서의 단독회담을 비롯해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

된 '판문점 선언'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관심을 끌었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제 향후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실천이 중

##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문 대통령 대선 공약 실현

### 미사일 도발 한때 긴장 최고조...평창올림픽 北 참가 이끌어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이뤄졌다. 지난해 5월 10일 취임 후 353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4차 TV 광고에서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대국 사이에서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지켜내겠다는 점을 강조한 공약이었다.

이러한 공약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한 위기 국면 속에서 제재와 압박, 대화와 협상을 간간으로 한 문 대통령의 탁월한 전략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북한은 문 대통령 취임 나흘 만에 IRBM(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쏘아 올렸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북한에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제안했고, 북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듯 그해 7월 4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을 발사하기에 이른다.

그 시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이 나왔다.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가 여태껏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다음 달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하며 일촉즉발의 남북 긴장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의 초강경 대결 구도라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렛대 삼아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는 한편 미국을 설득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에 나섰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당국 회담 의사를 밝혔다. 지난 2월 9일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맞춰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파견됐고 여기에는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도 포함된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탔다.

김 부부장은 2월 10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며 방북을 요청했다. 남북 간의 물밑 접촉 등을 통해 지난달 5일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남북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했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했다. 문 대통령의 진심과 평창 동계 올림픽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튼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서는 한 발 나아가 북 핵 문제 해결에 대한 공약도 있다.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절반 이상 달성한 만큼 다음 달 중으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의 공약을 넘어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체제 구축이 실현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판문점공동취재단 임동욱 기자

## 파격과 배려...남북 정상 '도보다리'서 30분 단독 회담

### 세계가 주목했던 하루

### 군사분계선 넘어 '10초 월경'도

전 세계로 실시간 중계된 남북 정상 간의 역사적 만남은 화사한 봄 날씨만큼이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이날 정상의 만남은 사전에 합의한 일정과 동선을 벗어난 첫 대면부터 온기가 묻어나는 친밀감, 상대에 대한 배려가 묻어나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오전 8시 6분께 청와대를 떠난 문 대통령은 1시간여 만인 오전 9시께 공동경비구역(USA)에 도착, 판문점 남측 지역의 평화의집에 잠시 머무르다 자유의집 앞에서 대기했다. 검은색 줄무늬 인민복을 입은 김 위원장은 오전 9시 27분께 판문각 정문에서 북측 경호원 20여명의 삼엄한 경호에 둘러싸여 수행원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남북 땅을 밟은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기념촬영을 했다. 이때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손을 잡고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약 10초 동안 북측 땅을 밟는 파격을 보였다. 두 정상은 전통 의장대가 도열해 있는 공식 환영식장까지 이동했다. 의장대를 사열한 두 정상은 공식 수행원들을 차례로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합참의장 격인 리명수 총참모장과 국방부 장관 격인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잇따라 문 대통령에게 경례를 하는 장면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가 사열을 끝내고 돌아가야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이 즉석에서 기념촬영을 제안해 즉석 포



정다운 대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토타임을 갖기도 했다. 두 정상은 기념사진 촬영 후 평화의집 1층까지 걸어서 이동했다. 김 위원장은 평화의집 1층 로비에 설치된 탁자에 앉아 방명록에 서명했다. 이후 남북 정상은 민정기 화백의 '북한산' 그림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했다.

남북 정상은 평화의집 2층 회담장에서 오전 10시 15분부터 일부 수행원과 함께 100분간 확대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양 정상은 모두발언에서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가감없이 표시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별도로 오전과 휴식시간을 가진 뒤 오후 4시27분께 공동 기념식수를 시작으로 오후 일정을 재개했다. 두

정상은 수행원 없이 판문점 내 '도보다리' 산책에 나섰다. 다리 끝 부분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배식지 없는 30분 동안의 실질적 '단독 회담'을 갖기도 했다.

이후 두 정상은 간략한 2차 회담 등을 거쳐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명시한 판문점 선언 발표에 나섰다. 이후 양 정상은 모두발언에서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가감없이 표시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성주 여사는 이날 오후 6시15분 판문점에 도착, 20분 전 미리 도착해 있던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환담을 나누는 뒤,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판문점공동취재단 임동욱 기자

# 나주, 2층 주택, 급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 1000만원~~
- 급매 - 5200만원
- H. 010-6838-1230

